
부평 음악 · 융합도시 조성사업 아카이빙 연구

-부평 대중음악의 활용방안에 관한 시론-

2018. 03.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이장열(0123456789연구소)

목 차

I. 연구개요	7
1. 연구 배경	7
2. 연구 범위	9
1) 공간적 범위	9
2) 시간적 범위	10
3) 문화적 범위	10
3. 연구 방법	11
4. 연구 목적	13
II. 부평의 대중음악 기반과 자산들	15
1. 부평 애스컴시티: 대중음악의 소비공간	15
1) 부평 애스컴시티 구성과 대중문화 전초기지	15
2)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 현황과 특징	22
3) 부평 애스컴시티 활용 방안	33
4) 아카이빙 연구의 남은 과제	34
2. 부평 신촌: 대중음악의 유통 공간	35
1) 부평 신촌 조성 배경	35
2) 부평 신촌 클럽 현황	38
3) 대중음악 매개지로서 부평 신촌	51
4) 부평 신촌 활용 방안	61
5) 아카이빙 연구의 남은 과제	62
3. 부평 삼릉: 대중음악의 레지던스 공간	63

1) 부평 삼릉의 조성	63
2) 부평 삼릉 연주자 현황	67
3) 부평 삼릉 거주 연주자 생활	72
4) 부평 삼릉 공간 활용방안	75
5) 아카이빙 연구에서 남은 과제	77
III. 부평 음악·융합도시로의 가능성	78
IV. 결론	78
1. 요약	80
1) 부평 애스컴시티 - 대중음악의 소비 공간	80
2) 부평 신촌 - 대중음악의 유통 공간	81
3) 부평 삼릉 - 대중음악의 창작 레지던스 공간	81
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87
3. 정책 제안	88
4. 향후 연구 과제	89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공간 범위	9
<그림 2> 부평 애스컴시티 부대 안내판(1970년대초)	15
<그림 3> 1962년 7월2일 동아일보	16
<그림 4> 부평 캠프마켓 내 베이커리 공장 앞 게이트	18
<그림 5> 1952년 8월 20일 한국전쟁 미8군 제79병참대대	11
<그림 6> 미제1해병사단 부사관 클럽(NCO Club)(1952. 5. 17)	19
<그림 7> 미제1해병사단 부사관 클럽(NCO Club)(1952. 5. 17)	24

<그림 8> 인천 럭키스트라이커 클럽(Lucky Strike Club)(1952. 5. 17)	24
<그림 9> 1970년대 부평 애스컴시티 게이트 3.	27
<그림 10> 1960년대 애스컴시티 지도.	29
<그림 11> 부평 캠프마켓 게이트3.(2018)	31
<그림 12> 부평 애스컴시티 게이트1(2018)	35
<그림 13> 1960년대 부평 신촌	37
<그림 14> 부평 신촌 지역 소재 클럽 분포도	38
<그림 15> 부평 신촌 하이트로즈(송도홀)	42
<그림 16> 부평 신촌 brothor클럽	43
<그림 17> 부평 신촌 드림보트 클럽	45
<그림 18> 드림보트클럽 건물(2018년)	45
<그림 19> 1970년 아폴로 클럽	46
<그림 20> 부평 삼릉 옛 유니버설클럽 자리	47
<그림 21> 부평 삼릉 옛 유니버설클럽 자리	47
<그림 22> 부평 청천동 로타리클럽	49
<그림 23> 1970년 부평 신촌	51
<그림 24> 1960년대 부평 신촌 성병 검사소	52
<그림 25> [대중일보] 1956년 10월 26일자.	56
<그림 26> 1960년대 부평 신촌 전파사	57
<그림 27> 1960년대 부평 신촌 잡화상	58
<그림 28> 부평극장	60
<그림 29> 부평 삼릉 출사택(2016년)	63
<그림 30> 부평 삼릉 옛집(2018년)	65
<그림 31> 부평 삼릉 동수역 3번 출구(2018년)	66
<그림 32> 부평 삼릉 출사택(2018년)	73

표 목차

<표1> 부평 에스컴시티 클럽 현황	30
<표2> 부평 신촌 중심으로 작성한 미군전용클럽 현황	39
<표3> 1961년 전국 트랜지스터 라디오 보급 현황	54
<표4> 1956년 부평지역 라디오 보유 현황	55
<표5> 1960~1970년대 부평 삼릉 거주(활동)한 대중음악가 현황	69

I.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이 연구는 2016년 부평 음악융합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카이빙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카이빙 연구 방향 제시와 함께 초보적인 연구 성과를 통해서 부평 음악융합도시에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평이 미국 대중음악을 강렬하게 흡수하고, 확장시키는 지역으로, 미군에 의해서만 대중음악이 한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단정해서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결론이다.

이런 단정적 결론이 앞서 세워지면 부평이 음악도시로 나아갈 동력과 자산을 찾기가 수월치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중음악의 자산과 항목들을 부평지역에서 찾아내는 노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됐다.

미군부대 부평 주둔이 한국 대중음악의 확산에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대중음악의 산실로서 대중음악의 자산들을 부평 지역이라는 장소성을 앞세워서 하는 본격적인 연구나 접근이 없었던 탓으로 부평의 음악도시로서 나아갈 근거를 내세우는데 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번 아카이빙 정책 연구는 부평 음악융합도시로 나아갈 방안을 부평의 대중음악의 자산들을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그 속에서 대중음악의 근거를 모색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이 연구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평 지역 장소성에 녹아든 대중음악 자산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발견하는 것은 부평 음악도시로 나아가는데 다른 지역과의 분명한 차별성을 둔 근거이자 동력이라는 점이다.

인천 부평이 다른 지역의 미군부대 주둔지와 다르게 이른바 미국의 팝음악을 우리나라에 확산시키는데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부대 주둔이라는 외재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은 내재적 시스템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부평이 한국의 다른 미군부대 주둔지와 비교해서 확연하게 대중음악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내재적 요인, 곧 부평지역이 대중음악을 흡수하고 확산시키는 대중 문화의 기반과 자산을 재발견하여 부평 음악융합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배경이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는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부평이 음악도시로서 가능성과 확장성을 근거를 찾는데 필요한 연구 범위로서 범주설정은 부평 대중문화의 소비와 창작(생산), 유통(매개)라는 요소를 전형적으로 지니고 있는 ‘부평 애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 을 아카이빙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1) 공간적 범위

부평 애스컴시티(행정동: 산곡1,2,3,4동, 청천2동), 부평 신촌(행정동: 부평3동), 부평 삼릉(행정동: 부평2동) 3군데 장소는 부평이 대중음악의 산실로서 구조적 시스템을 갖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장소이기에 부평의 대중음악의 활동과 근거들이 자리 잡고 있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여지껏 부평 대중음악도시와 관련해서 논의된 것을 보면 주로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부대 중심으로 음악 자산들을 찾는 노력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림1 연구의 공간 범위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 시간적 범위는 부평 애스컴시티가 조성된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철수로 부평미군기지 자산들이 서울 용산으로 대거 빠져나간 1970년대 초반까지로 정했다. 부평 지역이 한국대중음악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20여 년간의 시기에 집중해서 부평 대중음악과 관련된 활동과 흐름, 그리고 자산들을 살펴보았다.

3) 문화적 범위

대중문화로서 대중음악의 기반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소비, 창작(생산), 유통(매개)라는 대중문화의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논의는 부평의 대중음악의 소비적 측면(부평 애스컴시티)에서만 접근하는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음악도시로 부평으로 나아가는 근거를 명확하게 확보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기에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정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음악에서 중요한 소비 요소뿐만 아니라, 생산(창작)요소와 유통(매개)요소들을 함께 연구범위에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 소비 장소로는 ‘부평 애스컴시티’, 유통(매개) 장소로서 ‘부평 신촌’, 창작(생산) 장소로는 ‘부평 삼릉’을 장소성의 범주를 설정하여 접근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 방법은 앞서 연구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 대중음악의 소비와 생산, 유통을 담당했던 장소, 곧 부평 애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에서 대중음악 관련 자산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부평 지역에서 활동한 바 있거나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의 구술 청취, 당시 신문 자료와 당시 사진, 그리고 부평 대중음악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목록화하는 방법이다.

둘째 연구 방법은 부평 미군부대 애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이라는 장소는 한국대중음악을 배양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공간이자 장소로서 역할을 담당했음을 대중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런 대중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부터 부평 애스컴시티는 미국 대중음악을 시간의 차이 없이 고스란히 실시간으로 미군들이 소비했던 공간으로 재인식된다.

부평 신촌은 부평 애스컴시티의 게이트 1에 자리 잡은 장소로서, 한국인들이 미국의 대중음악을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장소로서 미국의 대중음악 유통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부평 삼릉은 부평 대중음악에서 중요한 요소인 창작(레지던스) 공간으로 재발견되는 시선을 제공하게 된다.

미국의 대중음악을 흡수하고 새롭게 한국적으로 전파한 부평, 곧 한국 대중음악의 산실로서 부평 애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 3군데 장소는 한국의 대중음악의 산실로서 트라이앵글을 형성한 장소임을 대중음악의 관련 자산들을 재발견하고 기존 연구된 자료들을 목록화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근거로 부평의 대중음악의 자산들은 음악클럽, 소비자층, 창작자, 창작과 소비를 매개한 그룹, 연주밴드, 가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라디오, 레코드판, 잡지 등), 대중음악을 소비하고 매개하고 창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를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등을 살펴본다.

4.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부평 대중음악의 장(場)이 펼쳐진 미군수지원사령부 ‘부평 애스컴시티’와 한국인들이 쉽게 대중음악을 접할 수 있었던 유통 공간으로서 ‘부평 신촌’, 그리고 대중음악인들의 레지던스 역할을 한 ‘부평 삼릉’의 장소성을 대중문화적 관점에서 집중해서 그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부평 음악문화도시로의 나아갈 전략적 방향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부평지역 대중음악 확산에 맹아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대중음악의 산실로서 부평 애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이라는 한국대중음악의 중요 장소성을 재발견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부평 대중음악 삼각 문화도시벨트 구상으로 나아갈 구체적인 대중음악 자산들을 새롭게 재조명함으로써 부평을 음악융합도시로의 추진 전략과 방향, 그리고 추진 방안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평 음악융합도시로서 나아갈 데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부평지역민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부평의 미래 세대에 대한 대중음악적 자양분을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제공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더해져야 가능해진다고 본다.

끝으로 이 연구는 부평 음악융합도시로 나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평 음악융합도시 추진을 위한 아카이빙 연구에서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연구 대상과 접근 방식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첫째 부평 음악융합도시로 나아갈 근거와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부평 음악융합도시를 뒷받침해 줄 부평 애스컴시티와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의 개발 계획에서 부평의 대중음악의 중심지였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부평의 대중음악 자산들이 지닌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는 이 연구를 통해서 부평 구민들이 부평이 한국대중음악에 있어서 중심 장소였음을 구체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는 교육 자료로서 활용할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부평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II. 부평의 대중음악 기반과 자산들

1. 부평 애스컴시티: 대중음악의 소비공간

1) 부평 애스컴시티 조성과 대중문화 전초기지

광복 전까지 일제가 조성한 조병창은 한반도에서도 평양과 부평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만든 군수시설기지이었다. 일제강점기 부평 조병창은 조선최대 군수공장으로서 위용을 드러냈다.



<그림 2> 부평 애스컴시티 부대 안내판(1970년대초)

출처: 인천 부평 애스컴시티에서 복무하던 주한 미군 병사 Wayne Algood이 촬영한 사진.

1945년 9월 8일 인천항에 상륙한 미군은 인천과 서울 지역을 점령한 뒤 단계별로 남한 전역에 진주했다. 당시 인천지역 점령 책임은 미24군수지원단 ASCOM 24이 맡았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조병창과 군수공장 일대에 부대를 주둔시켰다. 1945년 9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이곳을 “애스컴시

티”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직후 미해병대가 다시 주둔하면서 부평 애스컴시티 군수시설이 시작됐다. 일제강점기 부평에 자리한 조병창에 미군부대가 본격적으로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1951년 봄부터이다.

보급창, 의무대, 공병대, 통신대, 항공대 등의 미군 부대들이 차례로 부평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121후송병원, 55보급창, 6의무보급창, 565공병자재창, 19병기창, 4통신대, 512정비대대, 55항공대, 8057보충대, 37공병대, 8057보충대, 37보충대, 76보충대, 79병참대대 등이다.

1950년대 부평 애스컴시티는 ‘쿼터마스터 시티 QUARTERMASTER CITY’ 등으로 불리는 7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1963년 이들 구역들이 캠프 그란트 등 미국 대통령들의 이름을 빌려와 다시 명명되었다.



<그림 3> 부평 애스컴시티 주변의 현실을 다루고 있음.

출처: 1962년 7월 2일 동아일보

앞 신문기사에서는 1962년에 부평 애스컴시티에 종사한 한국인들이 8천 여 명이 넘을 정도로 큰 규모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한 달에 8천 여 명의 한국인들이 받는 돈은 3천 여 만원이고, 미군들이 매월 2만 달러를 부평 신촌과 삼릉에 뿌린다고 이 기사는 전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미군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양공주가 부평 애스컴시티 앞 부평 삼릉과 부평 청천동 백마장 근처로 1천 800여명이 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1960년대가 부평 애스컴시티가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한 곳이기에 그 주변 부 부평 신촌, 부평 삼릉 등도 경제적 특수를 누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3년에 접어들면서 부평 애스컴시티는 공식 폐쇄된다. 부평 애스컴시티의 폐쇄는 부평이 한국대중음악의 산실로서 큰 역할을 도맡아 온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계기점으로 작용할 만큼 부평지역에서는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1951년 이후 30여 년간 부평지역에 자리 잡았던 부평 애스컴시티는 1973년 6월 30일자로 부평지역에서 공식적인 기능을 마치고 해체되었다.

1971년 121후송병원(121st Evacuation Hospital)의 서울 용산 이전으로 시작된 부평 애스컴시티의 이전 및 폐쇄 작업은 2년여 동안 계속되었다.

부평 애스컴시티 내의 부대와 시설들 대부분은 경북 왜관에 있는 캠프 캐롤(Camp Carroll)로 옮겼다. 55헌병대(55th Military Police Company), 베이커리(Bakery) 등의 일부 시설만 남아서 캠프마켓(Camp Market)으로 축소되어 운영되었다.

부평 애스컴시티의 해체로 미군부대 내에 종사하던 한국인 종사자들도 대폭 감원되어,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약 2,4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인 종사자 300~400여명 가량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대를 따라가거나, 다른 미군부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현재는 캠프마켓에서 미 육.공군 교역처 베이커리(AAFES BAKERY) 공장만 가동 중에 있다. 2011년에 창고 등 저장시설, 주한미군 군수품 재활용 사무소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도 김천시 아포읍으로 이전했다.



<그림 4> 현재 부평 캠프마켓 게이트. 이 문 뒤에는 베이커리 공장이 있다.

현재 캠프마켓은 2011년 기준으로 군인 1명, 군무원 10명, 한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민간인 308명이 근무하고 있다.

캠프마켓 베어커리도 향후 2~3년 사이에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될 예정이다. 캠프마켓의 면적은 약 44만m²이다. 행정구역상 부평구 산곡3동과 산곡4동에 걸쳐 있다.

부평지역에서 미국의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인천상륙작전으로 미해병대가 일제가 조성한 조병창 자리에 주둔하면서 시작됐다.



<그림 5> 1952년 8월 20일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제79병참대대의 조감사진으로 부평 육군기지 창(ASCOM)과 활주로가 보임.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일제강점기 부평 조병창 시절에는 대중음악의 일본의 엔가가 주류 리듬이었다. 광복이 된 뒤에도 일본 엔카 리듬은 곧장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군이 한반도에 1950년대 한국전쟁 기점으로 본격 주둔하면서 엔카 리듬이 지배한 대중음악의 시대는 급속하게 저물고 미국 대중음악이

순식간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미국의 재즈 리듬이 한국인들에게 전파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장소는 단연코 미8군 예하부대 부평에 주둔한 애스컴시티이었다.

그래서 부평은 미국의 새로운 리듬의 음악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전파하고 재창조한 장소이기에 한국대중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미8군은 미국 대중문화를 주둔지에 그대로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미군부대마다 안팎에 미군이 여가를 보내는 클럽이 있었다.

이곳에서 한국의 음악연주자들은 생계를 위한 미8군 무대에 서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새로운 리듬의 음악을 접하고 싶은 욕망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대중음악 연주자들은 당시 미국에서 흘러들어온 리듬인 맘보, 차차차, 블루스, 모던 재즈, 컨트리, 소울, 락앤드롤 등을 악보도 없이 AFKN 라디오 방송과 LP판을 듣고 채보 작업은 기본이었다.

미8군쇼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미군부대에서 파견된 쇼 관계자들의 직접 심사로 실시했던 오디션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전체 쇼의 흐름과 구성, 그리고 편곡은 물론 영어까지 심사 대상이었던 이 결과에 따라 스페셜 A(AA), A, B, C클래스로 등급이 매겨졌다. D는 탈락이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엄격하게 실시되던 이 분기별 오디션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랐다. ‘원쇼(One show, 1회 공연)’를 기준으로 스페셜 A는 140불, A는 120불, B는 100불, C는 80불 정도였다.

AFKN(현 AFN Korea)의 ‘아메리칸 탑40’에 귀 기울였고 미군부대의 주크박스(Juke Box) 등을 통해 악보를 채보하고 멜로디를 익혔다.

공개 오디션 현장에서 펼쳐지는 쇼의 구성이나 음악성, 테크닉 하나하나를 서로가 서로의 비교 대상이자 곧 연구 대상이었다. 동시에 다른 단장이나 마스터의 눈에 떨어 수 있는 캐스팅 기회의 장이기도 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오디션, 이 엄격한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미8군쇼가 성장하는 힘의 원천이자 경쟁력이었다.

미8군 밴드는 세 가지 그룹이 존재했다. 오디션을 통과한 전국의 미군 부대를 순회하는 ‘플로어밴드’, 그리고 미8군 기지 내 특정 클럽에서 장기계약으로 연주하고 노래하는 ‘하우스밴드’, 마지막으로 미군부대 내 클럽이 아니라, 기지 주변 민간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연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오픈밴드’로 나뉜다.

미8군 미군수지원사령부 “애스컴시티”는 부평에 자리 잡은 한반도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미군 기지였다.

그런 만큼 이 기지에 근무하는 미군들의 숫자가 가장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부평 애스컴시티 내 미군클럽에서 오디션을 통과한 연주자들이 연주할 기회가 그만큼 많았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부터 1970년 초 까지 20여 년 동안 부평 애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은 미국의 대중음악을 온몸으로 받아낸 곳이다.

한국적 대중음악을 탄생시키고 만들어낸 대중음악연주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여 들었던 부평이기에 한국 대중음악사는 부평을 말하지 않고는 논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장소이다.

2)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 현황과 특징

근대 도시 부평은 1945년 광복 이후 주둔한 미군부대와 1960년대 조성된 부평공단을 두 기둥으로 해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5년 9월부터 인천에 미군이 주둔했다. 핵심 기지들은 부평에 위치했다.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의 ‘미군수지원사령부(Ascom)’가 주둔했다. 그래서 부평을 ‘애스컴시티’로 명명하기도 했다.

부평 애스컴시티에는 4개의 큰 규모의 Camp Market, Camp Grant, Camp Taylor, Camp Tyler와 작은 규모의 3군데 Camp Adams, Camp Harris, Camp Hayes가 크고 작은 작은 7개 캠프로 구성되어 있다.

부평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미군부대는 미 제61병기사령부였다. ‘백마장’ 쪽에는 미 제304통신대가 주둔하였다.

부평1동 쪽에는 미 제192병참대대가 자리를 잡았다. 8057보충대도 위치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미군들이 부평을 거쳐 갔다.

미군은 1960년대 후반이 되면서 조금씩 떠나기 시작했다. 미 제512·516 병기부대는 1968년 해체됐고 1969년에는 제38보충대, 제337병기중대 등이 용산으로 옮겨 갔다. 비행대대는 평택으로 이전했다.

캠프별 부대는 44공병대, 6의무보급창, 55항공대, 55병참부대, 76공병대, 121후송병원부대, 8057보충대, 19병기단, 335정비대대, 37공병대, 70자동차부대, 44통신대, 74자동차부대, 565공병자재창 등이 있었다.

현재까지도 부평 애스컴시티 내 부대에 대한 공식 명칭이 완전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다.

① 미군클럽 특징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 장교클럽(Officer's Club)과 부사관클럽(NCO club), 사병클럽(EM club)이다.

부평 애스컴시티는 크고 작은 캠프 7개가 결합해서 구축된 미군수기지사령부였다.

한반도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고, 근무한 미군들과 한국인 근로자들도 가장 많았다. 여기에 한국인 종사자가 1962년도에는 8천명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였다.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에는 미군 장교와 병사들이 한국인 밴드들의 공연과 무희들의 춤들을 보면서 여흥을 즐겼다.



<그림 6> 애스컴시티 미제1해병사단 부사관 클럽(NCO Club) 개관식 공연(1952. 5. 17)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그림 7> 애스컴시티 미제1해병사단 부사관 클럽(NCO Club) 개관식 공연(1952. 5. 17)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그림 8> 미해병대원이 인천 럭키스트라이커 클럽(Lucky Strike Club)(1952. 7. 30)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위의 사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평 애스컴시티에 설치된 영내 클럽에서는 단순한 재즈풍의 연주에 맞춰 노래만 부르고 듣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공연(춤 공연, 댄스)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부평 애스컴시티 영내 미군클럽들 대부분도 음악, 춤, 댄스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여흥의 장소로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부평 애스컴시티에는 7개 캠프와 각 소속부대마다 음악클럽이 미군 규정에 따라서 설치되었기에 클럽 숫자가 꽤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1960년대 부평 애스컴시티 지도상에 표시된 클럽(극장 포함)은 21개로 확인되고 있다.

대중음악의 소비 공간으로서 영내에 자리한 클럽과 더불어 눈여겨 봐야 할 공간은 극장이다. 부평 에스컴시티에는 미군 클럽뿐만 아니라, 캠프별로 극장까지 구축해 놓았다.

극장에서는 미국 상업영화를 주로 상영하였지만, 공연장으로도 활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평 에스컴시티 내 클럽에는 계급별 분류뿐만 아니라, 인종별 분류도 존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계급별 분류는 장교클럽(officer's Club), 부사관 클럽(NCO Club), 사병 클럽(EM Club) 세 종류가 계급 별로 다르게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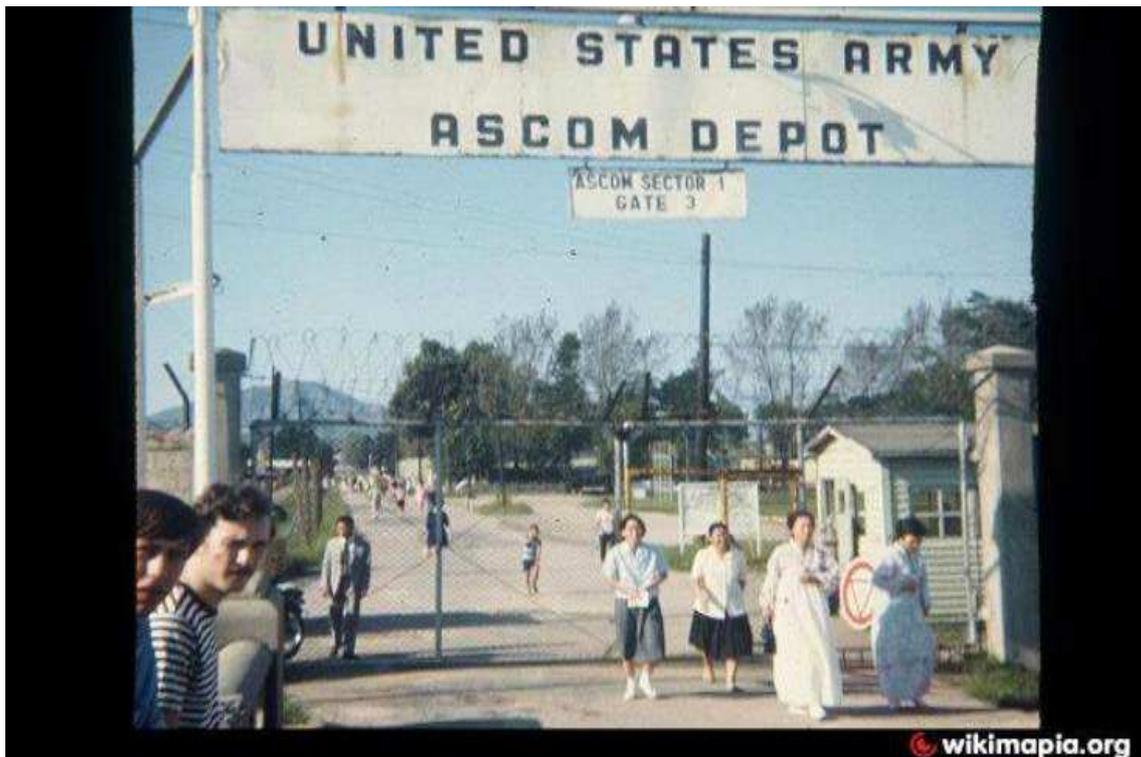
연주하는 음악의 장르나 연주 시간 차이는 크게 없었다. 인종별 클럽 구분은 제도적으로 구획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인종별로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달랐다.

백인은 폴카 종류를 좋아하고 흑인은 스윙 재즈 종류를 즐겼다.

그러나 계급별 인종별 선호도가 밴드의 레퍼토리 구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다.

② 미군클럽 현황

1951년부터 1973년까지 부평 애스컴시티 영내 클럽 분포는 7군데 캠프별로 나누고, 장교클럽, 부사관클럽, 사병클럽으로 분류해서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산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편 캠프별 극장 현황도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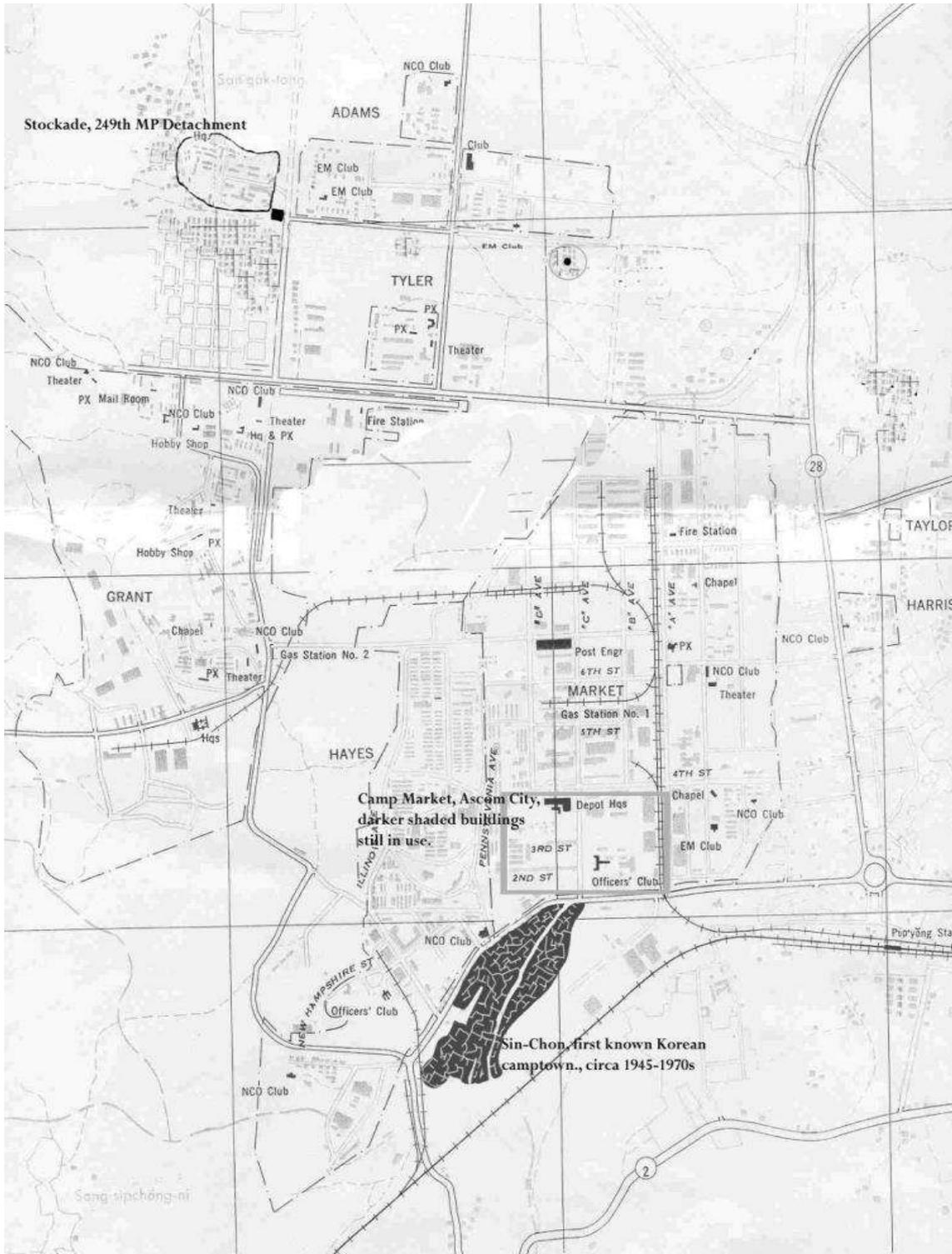


<그림 9> 1970년대 부평 애스컴시티 게이트 3. 출처: wikimapia.org

부평 애스컴시티에는 4개의 큰 규모의 Camp Market, Camp Grant, Camp Taylor, Camp Tyler와 작은 규모의 3군데 Camp Adams, Camp Harris, Camp Hayes가

크고 작은 작은 7개 캠프로 구성되어 있다.

여지껏 부평 애스컴시티 내 대중음악과 관련한 클럽 및 극장 위치와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는 노력들이 부족해서 향후 캠프마켓 미군부대 반환 뒤에 이뤄지는 활용방안 모색에서 대중음악 관련 시설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활용하는 세부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림 10〉 1960년대 애스컴 시티 지도

앞의 지도 자료를 근거로 부평 애스컴시티 내 캠프별 미군 클럽과 극장에 대한 위치와 숫자는 다음과 같다.

캠프별 부대는 44공병대, 6의무보급창, 55항공대, 55병참부대, 76공병대, 121후송병원부대, 8057보충대, 19병기단, 37공병대, 70자동차부대, 44통신대, 74자동차부대, 565공병자재창 등이 자리하고 있다.

구분	장교클럽 (offier's Club)	부사관 클럽 (NCO Club)	사병 클럽 (EM Club)	Club	극장 (theatey)
Camp Market	1	2	1		1
Camp Grant	-	4	-		4
Camp Tyler	-	-	-		1
Camp Hayes	1	2	-		-
Camp Adams	-	1	2	1	-
Camp Harris	-	1	-		-
Camp Taylor	-	-	-		-
합계(22)	2	10	3	1	6

〈표 1〉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 현황

부평 애스컴시티 Camp Adams내에 Club으로만 표기된 클럽이 1개가 존재하고 있다. 이 캠프에는 부사관클럽 2개, 사병클럽 1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장교 클럽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가능하다.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클럽에는 클럽명칭이 존재했는데, 현재까지 미군클럽 명칭은 NCO, 로터리, 레오, 세븐 등이 파악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1> 2018년 부평 애스컴시티 게이트 3. (2018)

미군클럽 명칭은 부대명칭과 연도해서 부르거나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한다.

현재 확보한 지도상에 표시된 부평 애스컴시티 내 클럽(극장 포함)해서 22개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미군클럽 운영 방식

1973년까지 부평 애스컴시티에는 22개의 미군클럽이 있었다.

미8군 오디션에 통과한 오픈밴드 연주자들은 특정 클럽에 부킹되면 주말마다 몇 개월씩 일을 했다.

보통 한 달에 10번 정도 연주하러 미군클럽을 방문한 연주자들은 일반무대에 몇 배가 되는 출연료를 받았다.

당시 출연료는 클럽의 미군 매너저가 부개에서 수표를 받아 현찰이나 출연자들이 원할 경우엔 군납 물건으로 바뀌어서 밴드연주단에 주기고 했다.

사병과 부사관 클럽과 달리 장교클럽은 한국인 밴드를 부르면, 보통 공연은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무대에서는 일절 한국 노래는 못하고 주로 미군들이 좋아하는 재즈, 팝송들을 연주했다.

당시 클럽에서는 햄버거, 스테이크, 치킨, 면세 맥주 OB, 크라운맥주 등을 팔았다.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 가면 ‘송 폴리오’ 같은 팝송 악보 책이 매달 나와 국내 연주인들은 미국에서 어떤 노래가 가장 인기가 많은지를 알고 연습해 선곡에 도움이 되었다.

부평 애스컴시티 오픈밴드는 미9군에서 관장했고, 3~6개월에 한번 씩 오디션을 봤다.

밴드가 미군클럽에서 연주하면 받는 금액은 당시 공무원 월급이 한 달에 3~4천원 정도였는데, 밴드연주자들은 공무원의 30배에 가까운 대략 9만원 정도 받았다.

3) 부평 애스컴시티 활용 방안

부평 애스컴시티에는 대중음악의 소비 공간으로서 특화하고, 부대에 존재한 클럽들의 정확한 위치와 명칭을 고증한 뒤, 그 장소에 대중음악 관련해서 표지석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서 미국대중음악이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에서 전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표지석을 연결해서 가칭 ‘미국 대중음악 들레길’을 만들어내면 외국의 대중음악 관광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평 애스컴시티에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캠프마켓을 세계적인 대중음악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부평 캠프마켓을 공원으로 지정한 뒤, 공원 이름을 “부평 애스컴시티 파크”로 명명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부평 애스컴시티는 한반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였고, 그곳을 거쳐 간 미군들도 가장 많았던 미군부대였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부평 애스컴시티 장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세계적인 대중음악 밴드들을 1년에 한번 초청해서, 현재 캠프마켓을 “부평 애스컴시티 파크”로 해서 1만평 정도를 대중음악의 공연장으로 활용한다면 부평이 세계적으로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아카이빙 연구의 남은 과제

부평 애스컴시티 아카이빙 정책연구를 확인하고 가장 미흡한 사항은 부평 애스컴시티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전혀 없었다.

부평 애스컴시티에 주둔한 부대명칭과 부대위치, 부대 규모, 취급한 군수 물자, 미군 부대 숫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덧붙여서, 부평 애스컴시티에서 한국인 노무자들의 역할 등에 대한 생활 사적 측면 연구도 부평 대중음악도시로 나아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에 시급하게 후속 연구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부평 신촌: 대중음악의 유통 공간

1) 부평 신촌 조성 배경

부평 신촌(新村)은 일제강점기 조병창, 광복과 6·25전쟁 이후의 미군 정착 등 주변의 군사적,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형성된 마을이다.

조병창에 근무하면 징병과 징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전국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신촌에 정착하였다.

한때는 일제강점기에 지은 조병창 사택도 부평 신촌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

부평 신촌은 과거 일제의 조병창과 미군부대의 영역권에 있었고, 이른바 후방지 마을이다.



〈그림 12〉 부평 신촌 앞 2018년 부평 에스컴시티 게이트 1 정문. 현재는 철조망 뒤로 담벼락을 설치해 놓아서 미군부대 안쪽으로 볼 수 없는 상황.(2018)

부평 신촌은 부평 애스컴시티 게이트1 정문에 위치한 미군부대에 가장 인접한 후방지 지역이다.

부평 애스컴시티 게이트 1 정문과 가까워 미군의 출입이 빈번한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이런 위치로 인해 미군을 상대로 한 클럽 등 유흥업소가 생기게 되었고 종사자들도 모이게 되었다.

또한 주민 입장에서는 미군부대 근로자로 종사하면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부평 신촌은 미군수지원사령부 애스컴(Ascom : Army Support Command)을 중심으로 성립된 마을이었다. 애스컴은 본래 광복 이후 일제의 조병창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미군부대다.

1973년 미군감축이 이루어지며 애스컴이 캠프마켓으로 축소되었던 때까지 부평 애스컴시티는 부평 신촌의 마을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었다.

부평 신촌은 부평 애스컴시티에서 다양한 미군 물품과 미국 대중문화 등이 곧바로 쏟아져 나온 장소였다.

부평 신촌에 이른바 술을 파는 클럽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부평 애스컴시티가 조성되기 시작하고, 1960년대 중반부터이다.

부평 신촌에 미군 상대 클럽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 미군들의 여흥을 일과 뒤에 부대 안에서만 해소할 수 없었다.

이른바 미군들이 부대 안의 클럽에서는 일상적인 이탈이 제한되었기에 일과 시간이 끝난 미군들이 부평 신촌에 마련된 클럽들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3> 1960년대 부평 신촌 일대 골목.

출처: 인천 부평 애스컴시티에 복무하던 주한 미군 병사 Wayne Algood이 촬영한 사진.

부평역사박물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삼아, 앞선 조사에서 빠진 클럽들을 새로 발견한 것과 부평 애스컴시티 바깥 부평 신촌 뿐만 아니라, 부평 삼릉, 부평 청천동에 있었던 미군전용 클럽들을 추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상호	위치	무대유무	비고
1	아리랑클럽	부평 신촌	있음	부평 신촌에서 가장 큰 규모
2	드림보트클럽	부평 신촌	있음	백인선호
3	세븐클럽	부평 신촌	있음	
4	키클럽	부평 신촌	없음	백인선호
5	화이트로즈(송도홀)	부평 신촌	없음	
6	그린도어클럽	부평 신촌	없음	
7	홍콩홀	부평 신촌	없음	
8	신일홀	부평 신촌	없음	
9	신정홀	부평 신촌	없음	
10	서브달러클럽	부평 신촌	없음	흑인선호
11	맘보홀	부평 신촌	없음	흑인선호
12	신세계클럽	부평 신촌	없음	
13	부산홀	부평 신촌	없음	
14	하니문클럽	부평 신촌	없음	
15	플레이보이 컨츄리 (뉴컨츄리클럽)	부평 신촌	없음	
16	수도클럽	부평 신촌	없음	

17	평양홀(뉴욕홀)	부평 신촌	없음	
18	브라더 클럽	부평 신촌	미확인	새로 발견(키클럽 맞은편)
19	아폴로클럽	부평역 근처	있음	
20	유니벌서클럽	부평 삼릉	있음	
21	원더클럽	부평 삼릉	없음	
22	로타리클럽	부평 청천동	없음	

<표 2> 부평 신촌을 중심으로 작성한 미군전용클럽 현황.

주 : 부평역사박물관 “신촌 바로보기” 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이처럼 부평 대중음악과 관련한 유통 공간으로서 클럽들은 부평 신촌을 중심으로 22개 미군전용클럽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평 신촌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군클럽들의 특징과 관련 사진들을 아래에 나열해 둔다.

● 아리랑클럽

아리랑클럽이 규모가 가장 컸고 연주자를 불러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미8군출입 밴드였던 스타더스트 밴드의 드러머 박현오(남, 1942년생)의 기억에 삼릉의 경찰악대 연주자가 일과 후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 삼아 저녁에 아리랑클럽에서 연주하는 일이 있었다.

아리랑클럽이 신촌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좋은 클럽이었지만, 미군 부대 내의 클럽과는 견주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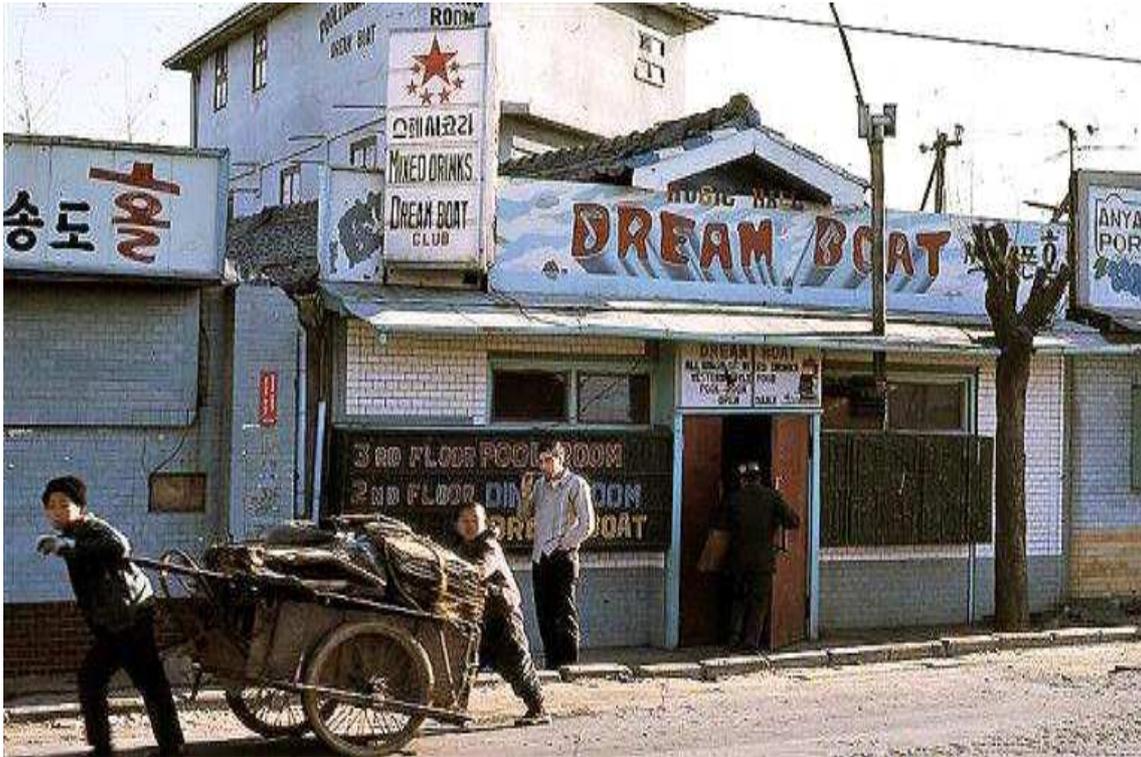
● 홍콩홀

1950년대 후반에 문을 연 미군전용클럽이다. 클럽에서는 전축과 주크박스를 틀어놓고 음악을 들었다고 한다.

● 화이트로즈(송도홀)

차영수씨가 운영한 화이트로즈는 백인 군인 전용클럽이며 밴드 연주가 가능한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1968년에 결성한 화이트 로즈 밴드가 활동했다. 밴드 멤버는 기타 정창교, 드럼 김영진, 베이스 차종현, 보컬 이인기 5인조 라인업이었다.

● 그린도어클럽



<그림 15> 드림보트 클럽 옆에 자리 잡은 하이트로즈 (송도홀)

하우스 밴드 연주가 가능한 클럽이었다.

● 신일홀

● 신장홀

● 세븐클럽

컨트리 음악을 연주한 클럽이다.

● 수도클럽

● 하니문

● brothor



<그림 16> 부평 신촌 KEY CLUB 맞은편에 brother클럽이 보인다. 출처: Tim Norris

● 키클럽

백인 전용 클럽이다.

● 플레이보이 컨츄리(뉴컨츄리클럽)

백인 전용 클럽

● 서브달러클럽

흑인 전용 클럽

● 맘보홀

흑인 전용 클럽

● 신세계클럽

● 드림보트클럽

백인전용클럽으로서 무대 공간 없고, 도너츠 판과 LP를 틀어주는 클럽이다. 현재는 부일정육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건물 형태와 내부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Dream Boat March 29 1969 Sin chong dong Korea

<그림 17> 1969년 부평 신촌 드림보트 클럽. 출처: Tim Norris



<그림 18> 드림보트클럽 건물에는 부일정육점이 운영되고 있다.(2018년)

● 아폴로클럽

아폴로클럽은 1969년 12월 처음 오픈했다. 미군을 상대로 한 외국인 전용클럽이었다. 한국인도 암묵적으로 클럽을 드나들었다.

아폴로 클럽은 양조장 자리였다. 건물을 그대로 둔 채 일부를 리모델링 해서 외국인 전용 클럽으로 고쳤다.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인들이 드나드는 클럽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0년대 문을 닫았다.



<그림 19> 1970년 아폴로 전경. 현재는 사라지고 없음. 부평역 근처에서 현재 부평공원 가는 길 중간쯤에 위치했던 클럽. 출처: wikimapia.org

● 유니버설클럽



<그림 20> 부평 삼릉 옛 복여중 앞에 있던 유니버설클럽 자리다. 2016년에는 옛 건물 형태만 남아 있는 상태다.



<그림 21> 부평 삼릉 옛 복여중 앞에 있던 유니버설클럽 자리에 2018년 현재 옛 건물 형태도 사라지고 빌라가 들어서 있다.

부평 삼릉에 위치한 미군장교들이 자주 찾는 클럽이다. 부평에 있던 공수부대 장성들도 자주 방문했다. 클럽의 공간은 둘로 구분되어 있었다. 미군 장교들은 차량을 이용해 이곳에 왔다.

바로 부평 신촌에 자리한 클럽이 많아서 미군들이 부평 삼릉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유니버설 클럽에서 영화를 촬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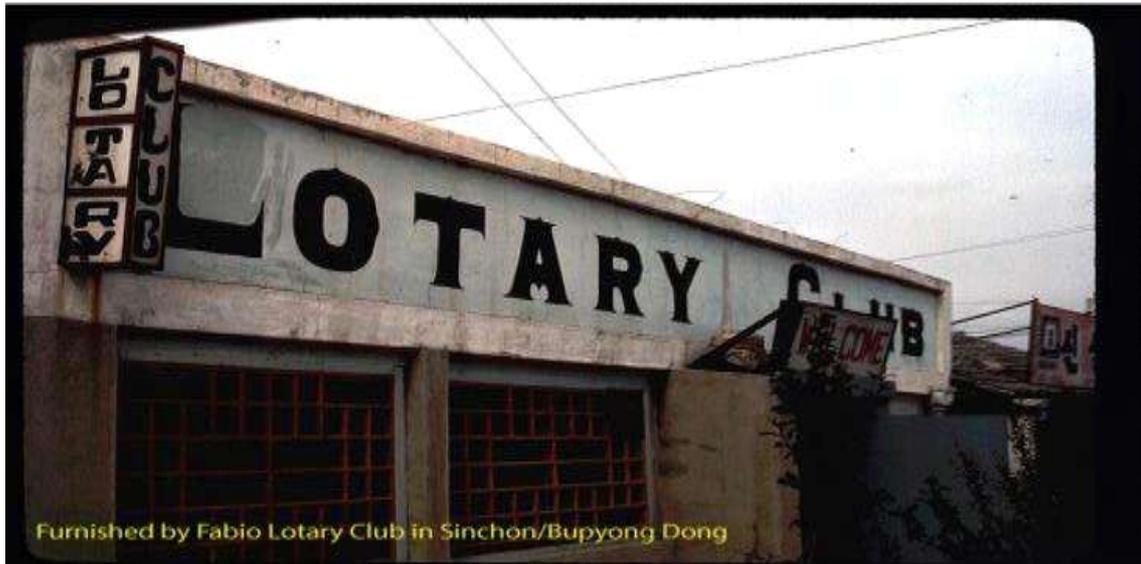
이대엽, 남보원 등이 출연한 고영남 감독의 ‘공수특공대작전’이란 영화다. 잠시 스티븐 등장하긴 했지만 클럽 내부가 영화에 고스란히 소개됐다.

유니버설클럽은 1980년 중반까지 운영되다가 문을 닫았다.

● 원더랜드

부평 삼릉에 있던 클럽인데, 규모는 아주 작았다. 현재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 로타리클럽



<그림 22> 부평 신촌이 아닌 청천동 화학부대 근처에 있었던 로타리클럽.

출처: furnished by fabio

부평 청천동에 있었던 클럽이다. 1970년대초 부평 애스컴시티 철수에 따라서 문을 닫았다.

부평 신촌을 중심으로 부평 삼릉, 부평 청천동까지 미군전용클럽이 현재까지는 22개가 확인되고 있다.

미국 대중음악을 요즘말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1950년 이후에 남한에서는 미국의 대중음악을 실시간으로 미군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부평 신촌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평 신촌에는 미군전용클럽이 22군데가 성업 중이었고, 매일 밤 부평 애스컴시티 소속 미군들이 부평 신촌 미군전용클럽으로 와서, 당시 미국에서 유행했고 즐겨 들었던 재즈풍의 음악들을 듣고 춤을 추면서 놀았던 장소였다.

부평 신촌 미군 전용클럽에는 백인과 흑인 클럽이 암묵적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한국인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클럽 관계하는 한국인들과 미군들과 함께 온 이른바 양공주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3) 대중음악 매개지로서 부평 신촌

① 양공주 - 대중음악의 매개자

부평 신촌은 일제강점기 조병창 시절부터 마을이 조성됐다가 1945년 9월 8일 인천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그해 말 부평 신촌 주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른바 기지촌이 들어섰다. 그리고 한국전쟁기 부평 애스컴시티가 부평에 본격적으로 조성되면서 부평 신촌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림 23> 1970년 대 초 부평 신촌 앞 도로

출처: 인천 부평 애스컴시티에 복무하던 주한 미군 병사 Wayne Algood이 촬영한 사진.

부평 애스컴시티가 구축되면서 부평 신촌에는 미군 전용클럽이 하나 둘 씩 영업을 시작했다.

1955년 미군부대가 주둔하던 부평 지역에 이른바 양공주가 다수 거주해 무면허 의사가 몰려들었다고 하고, 부평 애스컴시티부대 인근인 산곡동, 부평2동(삼릉), 부평3동(신촌) 일대에 ‘미군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무면허 미장원이 성업했다.

한국전쟁이 휴전된 지 2년 남짓 지난 정도였음에도 이미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양공주와 관련된 산업이 시작되어 있었다.



<그림 24> 1960년대 말 부평 신촌에 자리한 성병 검사소에 이른바 양공주들
출처: 인천 부평 애스컴시티에 복무하던 주한 미군 병사 Wayne Algood이 촬영한 사진.

또한 1962년 부평 신촌 일대 미군전용클럽은 현재까지 파악된 클럽만 20개소였던 것을 가늠하면, 부평 신촌의 이른바 ‘클럽거리’는 미군 주둔 이후 195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해 196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이후로 부평 애스컴시티가 캠프마켓으로 축소되었던 1970년대 중반까지, 곧 1960~70년대 중반 시기는 부평 신촌 클럽거리의 전성기였다.

부평 신촌 등에 미군전용클럽에는 미군 이외 한국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제한구역이지만, 미군이 호출하는 이른바 양공주들은 클럽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그래서 부평 신촌에 거주했던 이른바 양공주들은 자연스럽게 미국 대중 음악을 누구보다도 쉽게 접하고 미국 대중문화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다.

미국의 대중음악을 향유하고 소비하고 이를 한국에 전파하는데 매개자 역할을 한 사실을 한국 대중음악사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부평 신촌의 이른바 양공주들은 미군들의 여흥을 돕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미국 대중음악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 면도 있을 것이다.

대중음악의 직접적 소비자들이고, 그리고 매개자 역할로서 이른바 양공주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향후 한국 대중음악사 연구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

② 대중문화의 집산지 - 라디오, 극장, 뽕판, 극장

부평 신촌은 대중음악이 한국민들에게도 유통되는 공간으로서 자리 잡는 조건을 갖춘 장소인 것과 더불어 미국 대중음악을 다른 지역에 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라디오) 보급률이 높았다.

구분	댓 수	비고
전 국	81,626	
서 울	21,451	
경기도	14,077	
충 북	2,081	
충 남	6,303	
전 북	6,977	
경 북	7,691	
경 남	12,364	
강원도	3,537	
제주도	873	

<표 3> 트랜지스터 라디오 보급 현황 1961년. 주: 한국통계연감(통계청)

1961년의 우리나라 라디오(트랜지스터) 보급 댓수는 경기(당시 인천에 포함)가 서울 다음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평 신촌과 부평 삼릉, 부평 청천동 일대의 라디오 보급률 높음은 결국 미8군이 개국한 AFKN(American Forces Korea Network)방송을 청취하는 부평의 사람들이 여타지역에 비해 많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AFKN은 1950년 10월 4일 라디오 방송으로 개국(반도호텔 설치. 출력 5Kw, 주파수 560Khz)한다.

부평 애스컴시티 주변의 부평 신촌, 부평 삼릉에서는 AFKN 라디오 방송에서 편성프로그램 American Top40과 같은 음악 방송을 쉽게 수시로 들을 수 있었던 여건이 부평 애스컴시티와 부평 신촌, 부평 삼릉지역에 거주하는 미군들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소지한 한국민들도 청취할 수 있었다.

1956년 10월 집계에 따르면, 인천시의 라디오 보유 대수는 6,037대였다. 그중 부평지역에만 1,010대가 있었다. 부평2·3동·십정2동의 보유 대수는 95대였고 총 호수 1,632호를 기준으로 대비할 때 5.8%의 보유 현황을 보인다

동명	총대수	전기식	전지식	전기전지겸용	전체 호수
부평2·3·십정2	95	56	21	18	1632
부평1	291	291	0	0	2185
산곡청천	515	315	50	150	1351
부개일신구산	54	45	6	3	486
삼산갈산	55	55	0	0	412
총계	1,010	762	77	171	6,066

<표 4> 1956년 부평지역 라디오 보유 현황. 주: 『대중일보』, 1956년 10월 26일자



<그림 25> [대중일보] 1956년 10월 26일자 인천지역 라디오 대수.

인천지역 라디오 보급 댓수 자료들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인천 지역에서 특히 부평 애스컴시티 인근 마을에 라디오 보급이 눈에 띄게 많이 있었다.



<그림 26> 1960년대 부평 신촌 전파사.

출처: 인천 부평 애스컴시티에 복무하던 주한 미군 병사 Wayne Algood이 촬영한 사진

그러다보니, 부평 신촌과 삼릉에는 라디오를 수리하는 전파사들이 유독 많았던 것이 이 때문이다.



<그림 27> 부평 신촌의 잡화상에는 라디오 등 당시에는 구하기 힘든 미군 물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1960년대 부평 신촌. 출처: 부평구청 소장

부평 신촌의 라디오 보급률이 부평 에스컴시티가 인접한 특수한 상황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결국 라디오를 통해서 AFKN에서 나오는 미국 대중음악을 부평 신촌에서는 쉽게 누구나 늘 들었던 곳이다.

대중음악의 확산에는 첫째로 민간 라디오 방송국(이른바 ‘민방’)의 등장과 KBS-TV의 탄생이다.

이제까지 ‘KBS 라디오’ 하나밖에 없던 상황에서 라디오가 다채널화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TV 방송이 시작되어 시각적 요인이 중요해진 것이다.

방송산업의 확장은 ‘연예인’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낳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1961년 문화방송, 1963년 동아방송, 1964년 동양방송이 개국하고, 1964년 동양방송, 1969년 문화방송이 TV 개국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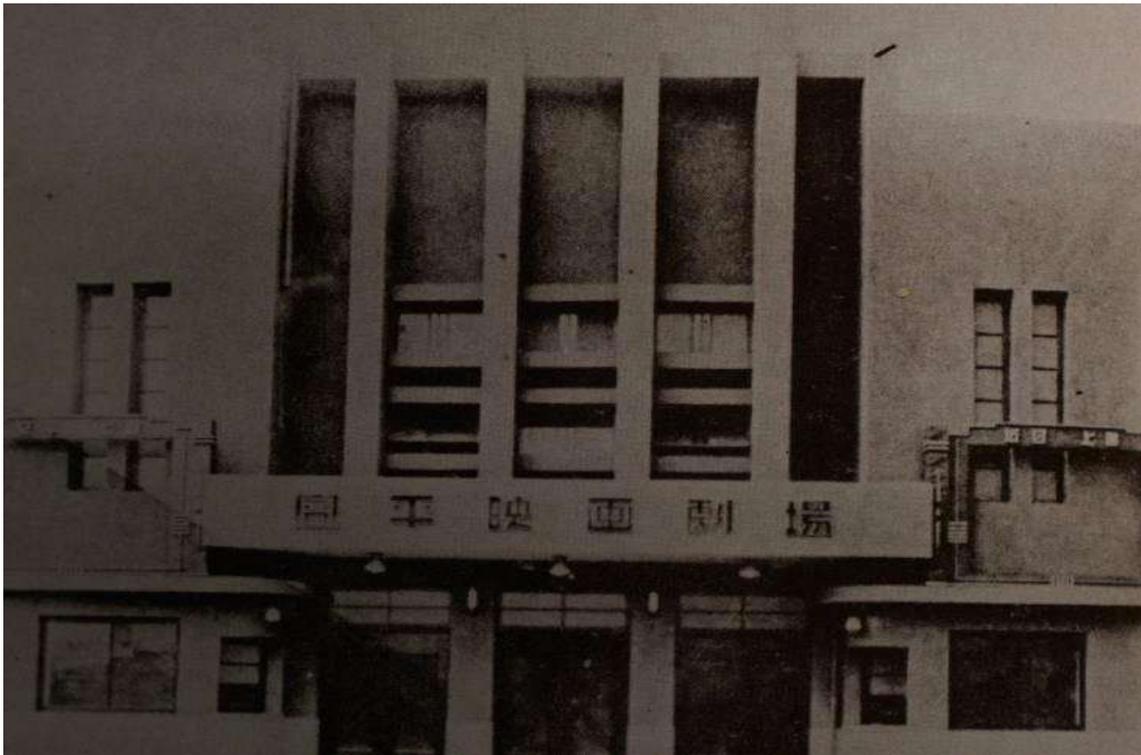
둘째는 LP 레코드의 등장이다. 1956년 10인치 LP가 SP(standard play)를 대체한 데 이어 1962년에는 12인치 LP가 10인치 LP를 대체하게 된다.

당시의 LP는 아직 모노(mono)였지만 그 이전의 SP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음질을 가지고 있었고, ‘신상품’의 도입으로 음반 산업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부평 신촌에는 레코드 백판 가게가 2군데 있었다. 그린도어클럽 뒷골목에 백판 가게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서울 청계천에도 없는 ‘백판’을 부평에서는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하나 부평 대중음악과 관련해서 음악공연을 할 수 있었던 장소로 주목해야 할 곳은 부평극장이다.

1943년말 경 부평영화극장이 등장했다.



<그림 28> 부평영화극장은 부평극장으로 한국전쟁 이후에 개칭.

부평영화극장은 뉴스 등을 매일 상영하거나 간담회, 집회 장소로 사용됐다.

부평극장에서는 음악 콩쿠르 대회가 열리기도 했고, 가수 현미가 소속된 ‘현시스터즈’가 공연한 극장이 부평 신촌과 삼릉 사이에 있었다.

4) 부평 신촌 활용 방안

부평 신촌은 한국적 대중음악이 유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미국의 대중음악이 유통되는 장소로서 기여한 점이 특징적이다.

부평 신촌은 부평 애스컴시티와 더불어 21개 미군전용클럽이 밀집해서 운영된 장소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점이며, 이를 부평 음악도시로서 나아가는 역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부평 신촌에 자리했던 클럽 자리에 클럽 명칭과 연혁 등을 넣은 표지석을 설치해 부평 대중음악의 유통지로서 가치 ‘부평 신촌 음악클럽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른바 부평 신촌의 이른바 양공주는 미군만이 출입할 수 있는 클럽에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미국 대중음악을 맨 먼저 수용하고 전파하는데 매개자 역할을 담당해던 것도 새로운 시선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평 신촌은 미국대중문화를 가장 빠르게 수용하고 전파한 장소라는 점도 부평 신촌의 공간적 문화적으로 접근할 때 필요한 요소이자 콘텐츠로 활용되어야 한다.

5) 아카이빙 연구의 남은 과제

부평 신촌의 대중음악 관련 아카이빙 연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평 신촌의 미군전용클럽에 대한 정확한 전수 조사와 함께 당시 부평 애스컴시 티에 근무했던 미군들의 부평 신촌 클럽에 대한 증언(영상 증언, 녹음)과 관련 사진들을 발굴하는 본격 시도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평 신촌에 미국 대중문화와 관련된 매체(당시 라디오, 잡지, 악보)와 백판 유통 경로, 당시 부평 신촌 미군클럽에서 들었던 백판을 수집하는 연구가 시급하게 뒤따라야 한다.

3. 부평 삼릉: 대중음악의 레지던스 공간

1) 부평 삼릉의 조성

삼릉은 ‘삼릉 사택’의 준말이다. ‘삼릉’을 한자로 쓰면 ‘三菱’이다. ‘세 개의 마름모’란 뜻이다. ‘삼릉(三菱)’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의 회사 이름이자 ‘쓰리 다이아 마크(スリーダイヤ・マーク)’라고도 부르는 회사 문양의 명칭이다.

일본 기업의 이름이 마을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정착했다. 예전 사람들은 부평 삼릉을 JV(japan village)로 불렀던 이유다.



<그림 29> 부평 삼릉 줄사택 전경(2016년)

부평 삼릉을 부평2동의 특정 공간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1942년 이후다.

1942년 미쓰비시중공업(주)은 경영난에 허덕이던 히로나카상공(弘中商工) 부평공장을 인수했다. 히로나카상공은 1937년부터 부평역 인근에 대규모 기계공장 건설을 추진했고 주변에 사택을 조성했다.

공장 자리는 광복 후 미군부대가 자리를 잡았다가 한국군 부대를 거쳐 지금은 부평공원으로 개방됐다.

부평이 한국대중음악의 산실로서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밴드 연주자들이 부평 삼릉에 전국에서 모여 들었기 때문이다.

부평의 대중음악을 이야기할 때, 부평 애스컴시티의 미군클럽들, 부평 신촌의 미군전용클럽들이 주로 이야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부평지역이 한국대중음악사에 큰 획을 긋을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부평 삼릉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부평 삼릉은 밴드 연주자들이 머물면서 기거했던 대중음악연주자들의 레지던스 역할을 담당했기에 부평이 한국대중음악사에서 20여 동안 중심에서 있었던 것이 가능했다.

부평 삼릉에 밴드 연주자들이 모여든 이유는 미8군 무대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거나 출연 기회를 얻기 위해서다.

부평 삼릉에는 미8군 무대에 선 경험이 있는 연주자들과 지속적으로 밴드 연주를 맡아서 진행하는 연주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당시 최신 미국 대중음악의 정보를 부평 애스컴시티로부터 취득하기 쉬운 장소이기에 가능했다.

부평 애스컴시티가 조성되고 난 뒤, 부평 삼릉은 미군부대 영내 클럽에서 음악 공연을 하는 연주자들이 거주하면서 연주 연습을 하던 연주자들의 레지던스 장소로 변모했다.



<그림 30> 부평 삼릉에 아직 남아 있는 옛 집들(2018년)

부평 삼릉은 부평 애스컴시티에서 멀지 않고,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부평 삼릉(미쓰비시) 출사택들이 오밀조밀하게 존재하고 있어 값싸게 거주할 수 있는 장소였다.

부평 신촌에도 영외 미군전용클럽들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대부분 LP판을 이용하는 장소이기에 연주자들이 신촌 영외 클럽에서는 연주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 31> 부평 삼릉에 거주하던 대중음악 연주자들을 미군 클럽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미군 트럭이 대기했던 자리로 현재는 동수역 3번 출구.(2018년)

부평 삼릉이 대중음악 연주자들이 대부분이 거주하게 된 이유는 미8군에 소속 미군부대에 오전마다 전속 계약을 맺은 연주들을 버스로 태워서 각 부대로 이동시키는 정거장, 당시 삼부약국 앞((현재 동수역 3번 출구 자리)이 삼릉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때문이다.

2) 부평 삼릉 연주자 현황

부평 삼릉에는 가수보다는 연주자들이 주로 모여 살았다. 그 이유는 미8군에서는 미군 클럽에서 재즈와 락앤롤 등을 연주를 잘하는 밴드 연주자들을 오디션에서 선호했기 때문이다.

부평 삼릉에는 미8군부대 밴드 연주자들로 계약된 연주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에 그렇다.

부평 애스컴시티는 미8군 무대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컸고, 연주 잘하는 사람들이 부평 삼릉에 옹기종기 기거하면서 음악 생활을 이어갔다.

1960년 중반까지 부평 삼릉 주변으로 150~200여명의 연주자들이 거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평 삼릉에서는 경기도 의정부와 오산 지역 등 미군 클럽까지 악단들을 태우고 다녔다.

통행금지가 있던 시대였고, 또 대중교통의 발달이 미흡했던 터라 미군들이 악단의 수송까지 담당하던 부평 삼릉은 대중음악 연주자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미8군 오디션에 통과한 밴드들이 미8군의 지시에 따라서 부평 삼릉에 거주한 것이었다.

부평 삼릉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악사들이 모여 사는 독특한 지역이었다.

부평 삼릉에서 연주자들을 실어 나르는 미군트럭(GMC)차량에는 7~9명으로 구성된 악단이 탑승했다.

부평 삼릉 당구장 앞에는 미군이 직접 연주들을 실어 나르는 미니버스와 트럭들이 줄을 섰다. 부평 삼릉에서는 평택, 파주 주둔 미군 클럽에까지 매일 연주자들을 실어 날랐다.

아래는 부평 애스컴시티와 부평 신촌, 부평 삼릉 등 부평 대중음악과 관련된 연주자들과 가수들을 목록화해 보았다.

이 목록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부평 대중음악과 관련된 것에 국한한 것이다.

밴드명 / 연주자	갈 래	내 용	비 고
차차차 오남매	부평 어린이 패밀리 밴드	-1958년 오누이와 사촌 남매 결성 -꼬마 드러머(부평 올리브요양병원 차경수 원장) -1958년 용산 미군기지에서 C등급 받음	
김윤옥(1922~	연주자	-전북 진안 출신 -미군 8군 최초 국내 밴드 <토미스 밴드> 멤버	
이관섭(1934~ 2017)	연주자/트론본	-인천 동구 화수동 출신 -송현국, 인천상업학교 -육군본부 국악대 -부평 애스컴시티 121부대 클럽 -8인조 스윙밴드 뉴킴, 록엔비트에서 활동	
토미스밴드	스윙재즈	-1950년 9월 결성	
록엔비트	밴드/스윙재즈	-8사단 군악대 출신 강대영	
뉴킴	밴드/스윙재즈	-색소폰 연주자 이관섭 주도	
힐탑	밴드/스윙재즈	-피아니스트 오윤성 운영	

새미	밴드/스윙재즈		
스타라이	밴드	-경찰악대 출신 유모 운영	
탑팻	밴드	-유선준 운영	
부평경찰학교 악대	군악대	-악대 멤버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 부평 에스컴시티 밴드 연주자로 활동	
한명숙	가수	-부평 에스컴시티 클럽 - “노란 샤쓰의 사나이(1961, 비너스레코드사)’	
김시스터즈	가수	-부평 에스컴시티 클럽	
리나박	가수	-부평 에스컴시티 클럽	
최선미	가수	-부평 에스컴시티 클럽	
패터김	가수	-부평 에스컴시티 클럽	
미스K	가수	-부평 에스컴시티 클럽	
배 호	가수	- 부평 삼릉에서 2년간 거주하면서 드러머로서 밴드 활 동 - ‘돌아가는 삼각지(1967, 아시아레코드)	
차영수	트럼펫/드럼	-1944년 서울 생 -더 트라바덜스 밴드 결성 -부평 에스컴에서 활동 -신촌에서 화이트 로즈 운영	
김홍탁	기타리스트	-1944년 5월 13일 인천에서 남 -동산중, 미8군 부평 에스컴에서 클럽 활동 -1963년 록밴드 키보이스, 히파이브, 히식스 활동	
임종임	가수	-1944년 인천에 남 -부평 에스컴에서 활동 -1968년 인천출신 여성들로 구성된 걸밴드 ‘레이드 버 즈	
이길례	가수	-걸밴드 레이드 버즈 초대 리드보컬 -1970년대 걸시스터즈(도토리 자매) 활동	
김삼순	드러머	-1948년 부평 출생	

		-걸 밴드 ‘레이디 버즈’ 멤버	
김대환	타악기 연주자	-1933년 생 -호적에 강대환 -1960년대초 신중현과 ADD4 결성 -1978년 국내 최초 프리재즈밴드 “강대환 트리오”	
이진동	기타리스트	-부평 신촌에서 거주 -고만석악단 일원으로 에스컴에서 활동 -밴드 라이더스, 하파이브 기타리스트	
최영훈	트럼펫	-1966년 미8군 오디션 통과 후 부평 에스컴 클럽에서 연주	
트로바더스	밴드	-차영수가 운영한 6인조 밴드 -부평 신촌 화이트 로즈 클럽에서 연주	화이트 로즈
리틀캐츠	7인조 밴드	-베이스 김병관(1952년생), 퍼스트 기타 박정희(1953년생), 보컬 루루자매 김승희(1953년생), 김승미(1955년생), 세컨드 기타 백영석(1955년생), 드럼 정차우언(1955년생), 리드보컬 정현수(1958년생)	공연 포스터 존재
탑 스텝스	밴드	-드러머 안기승(1957년생), 그의 아버지는 육군 군악대 출신. -1964년 결성, -유니버살 전속	
데블스(Devils)	밴드	-1970년대 결성 -김명길(부평 삼릉 거주)	
에인젤스	밴드	-1970년대 결성 -연석원(부평 삼릉거주)	
Happy Time	밴드	-유수봉 리더 - 부평 삼릉 거주	
TOPHAT	밴드	-유선준	
STARDUST	밴드	-김진해	
STARLIKE	밴드	-고만석 경찰악대 출신	

〈표 5〉 1960~1970년대 부평 삼릉 거주 또는 활동한 대중음악가

이 밖에도 부평 삼릉에 거주하면서 밴드활동을 한 연주자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부평 삼릉에 거주했던 대중음악 연주자들에 대한 발굴과 함께 현재 생존해 있는 연주자들에 대한 구술 증언 아카이빙 작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부평 삼릉이 한국 대중음악사에 남긴 흔적과 역사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1960년대 부평 삼릉에 거주했던 연주자들은 현재는 70세를 훌쩍 넘은 사람들이 많다.

이와 관련 대중음악 관련 기록들도 남겨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 당시를 기억하고 구술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 대중음악 창작의 산실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부평 삼릉에서 거주하면서 대중음악연주자로서 꿈을 펼치고 생계를 이어간 이들을 다시 발견해서 기록해 두는 아카이빙 연구는 부평 음악융합도시로 나아가는데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부평 삼릉은 부평을 뛰어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레지던스 공간이었음을 당시 부평 삼릉과 관련된 연주자들의 면면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게 된다.

3) 부평 삼릉 거주 연주자 생활

부평 삼릉(현재 부평2동)에는 많은 뮤지션이 거주했다. 1960년대에는 미8군에 나가는 밴드가 7~8개 팀 있었다. 부평 삼릉에는 악기를 연주할 연습 공간이 전혀 없었다.

부평 삼릉 거주 연주자들은 거주지에서 술도 함께 마시고 낮엔 부평 삼릉 거주지 마당에 나와 연습을 주로 함께 했다.

부평 애스컴시티에 22개, 부평 신촌에 21개의 클럽이 있었기 때문에 부평 삼릉은 밤 부대를 나갔다 들어온 연주자들이 낮 시간을 이용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풍경을 쉽게 목격할 정도이며 일상이었다.

부평 삼릉에 거주하는 연주자들은 전국을 무대로 다녔다. 1960년대 부평 삼릉의 하숙비는 천 백원 정도였다고 한다.

1960년대 부평 삼릉은 대중음악 연주자들의 레지던스 공간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담당했다.

전국에서 모여든 연주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기에 새로운 음악의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연습도 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림 32> 부평 삼릉 줄사택 전경(2018년)

부평 삼릉은 연주자들이 이른바 ‘부킹’ 을 하는 장소로 유명했다.

그런 일들은 악기를 팔거나 수리하는 ‘소리사’ 들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상점들이 일종의 기획사 역할을 담당했다.

부평 삼릉의 대표적인 ‘소리사’ 는 ‘고향사’ 였다. 현재 경인국도에서 부영로로 들어서는 초입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에서도 악기를 고쳐주거나 사제로 악기를 제작하기도 했다.

부평 삼릉에는 음악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부킹을 해 외부로 일을 하러 떠나는 악단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다.

이곳에서 부평,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도까지 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악기를 들고 떠났다. 부평 삼릉은 당시 ‘음악인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부평 삼릉에 거주하는 연주들과 부평 신촌에 거주하는 양공주들은 서로 공생적 관계였다.

부평 삼릉에서 미군 버스로 부평 에스컴시티 클럽으로 연주하러 갈 때 이른바 양공주들도 함께 버스를 타고 드나들었다고 한다.

4) 부평 삼릉 공간 활용방안

현재 부평 삼릉의 장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주거 환경의 열악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부평 삼릉은 대중음악 연주자들에게 값싼 거주환경을 제공해 준 줄사택 등이 부분 철거와 함께 재개발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다.

부평 삼릉은 대중음악 연주자들의 당시로서는 유일한 창작 레지던스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역사성을 지닌 장소라는 점이다.

미국의 최신 대중음악의 흐름과 정보를 공유한 음악인 마을이고,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 연습을 한 장소라는 점도 확인하게 된다.

부평 삼릉은 미군부대 클럽으로 가는 연주자들이 집합하는 음악 정류장 역할도 담당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음악과 관련해서 악기를 수리하는 악기사도 있었다.

악기와 앰프 라디오를 수리 점검하는 전파사가 연주자들의 기획사 역할을 담당하는 등 대중음악이 존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을 나름대로 갖춘 장소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요소이다.

이를 역사성을 감안해서 부평 삼릉에는 대중음악 연주 레지던스를 구축해서 젊은 대중음악 연주자들이 창작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방안이다.

또한 부평 삼릉은 부평지역을 넘어서 한국 대중음악사에 중요한 거점으로서 많은 대중음악 연주자들이 거주한 공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

그러므로 부평 삼릉에 부평 대중음악사박물관이 설립되어 부평의 음악과 한국대중음악을 널리 알리는데 최적의 장소로 여겨진다.

5) 아카이빙 연구에서 남은 과제

부평 삼릉의 아카이빙 연구는 부평 삼릉에 거주하면서 음악활동을 한 연주자들을 발굴하고, 음악활동과 음악연주곡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평 삼릉에 연주자들이 거주한 장소를 발견하고 발굴하는 아카이빙 작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부평 삼릉에 있는 줄사택이 1동만 남기도 철거되고, 줄사택을 중심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센터 등이 들어설 새뜰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다.

부평 삼릉이 한국 대중음악에서 큰 족적을 남긴 연주자들의 창작 레지던스 공간이었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사실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서 진행되면서 미래 가치로서 부평 삼릉이 지닌 대중음악의 콘텐츠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새뜰사업에 부평 삼릉이 지닌 지역 문화적 요소들이 중요한 콘텐츠로 구성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Ⅲ. 부평 음악융합도시로의 가능성

부평 한국대중음악의 전초기지이자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한 부평 에스컴시티와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은 모두 우리나라 고유지명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구축된 장소라는 점이 문화공간적 측면에서는 특징이다.

부평에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원인과 동력을 이번 아카이빙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중문화는 새로운 대중의 등장과 미디어의 확장, 경제적 여유 등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유통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범주이다.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지로서 부평에는 대중문화가 꽃피울 여건이 부평 에스컴시티와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이라는 공간에서 소비, 유통, 생산(창작) 요소들이 아주 가까이 마련되어 경제적 여건들이 뒷받침해 주시면서 활발하게 작동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번 아카이빙 연구에서 새롭게 재발견한 장소적 특징과 그 장소에서 이뤄진 대중음악적 요소들을 특징적으로 끄집어내어 콘텐츠화시키고, 세 장소를 부평의 대중음악벨트로 엮어내는 계획을 시급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껏 부평 대중음악은 소비적 측면, 곧 부평 에스컴시티의 클럽의 중요성만 강조해서 시선의 조명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부평의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라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번 아카이빙 연구는 부평 애스컴시티 뿐만 아니라, 부평 신촌과 부평 삼릉은 부평 대중음악에서 의미 있는 장소이자 한국대중음악에서 한국적이면서 부평적인 문화를 일궈낸 지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부평은 한국대중음악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 낸 대중음악의 생산, 소비, 유통 구조가 딱 맞아떨어진 유일한 장소이다.

부평 애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 세 장소를 역사성과 문화성을 고려해서 활용해 내는 것이 부평 음악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 방향이다.

IV. 결론

1. 연구 요약

1) 부평 애스컴시티 - 대중음악의 소비 공간

부평 애스컴시티에는 대중음악의 소비 공간으로서 특화하고, 부평 애스컴시티에 존재한 대중음악을 소비할 수 있었던 22개 클럽들의 정확한 위치와 명칭을 고증한 뒤, 그 장소에 대중음악관련해서 표지석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미국대중음악이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에서 전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면서, 이 표지석을 연결해서 가칭 ‘미국의 대중음악 들레길’을 만들어내면 외국의 대중음악 관광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평 애스컴시티에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캠프마켓을 세계적인 대중음악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부평 애스컴시티는 한반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였고, 그곳을 거쳐 간 미군들도 가장 많았던 미군부대였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부평 애스컴시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대중음악 밴드를 1년에 한번 초청해서, 현재 캠프마켓 부지를 대중음악의 공연장으로 활용한다면 부평 애스컴시티를 세계적 공연장으로 홍보할 수 있다.

2) 부평 신촌 - 대중음악의 유통 공간

부평 신촌은 한국적 대중음악이 유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미국의 대중음악이 유통되는 장소로서 기여한 점이 특징적이다.

부평 신촌은 부평 애스컴시티와 더불어 21개 미군전용클럽이 밀집해서 운영된 장소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점이며, 이를 부평 음악도시로서 나아가는 역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부평 신촌에 자리했던 클럽 자리에 클럽 명칭과 연혁 등을 넣은 표지석을 설치해 부평 대중음악의 유통지로서 가치 ‘부평 신촌 음악클럽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른바 부평 신촌의 이른바 양공주는 미군만이 출입할 수 있는 클럽에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미국 대중음악을 맨 먼저 수용하고 전파하는데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담당했다.

부평 신촌은 미국대중문화를 가장 빠르게 수용하고 전파한 장소라는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만큼, 부평 신촌을 대중문화 유통 공간으로서 콘텐츠를 발굴해서 활용해야 한다.

3) 부평 삼릉 - 대중음악의 창작 레지던스 공간

부평 삼릉은 대중음악 연주자들의 창작 레지던스 역할을 20여 년 동안 담당했던 한국대중음악사에 매우 소중한 장소로 자리매김해야 할 장소이자 공간이다.

따라서 부평 삼릉이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담당했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적극 알려내고 이를 다시 재조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따라서 부평 삼릉은 ‘공간의 재구축’, ‘대중음악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 ‘대중음악의 콘텐츠 구축’ 등이 뒤따라야한다. 부평 삼릉을 음악 빌리지(Music village)로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부평 삼릉을 음악빌리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부평 삼릉이 대중음악의 연주자들이 거주한 장소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미래의 음악 세대들에게 창작할 수 있는 음악 레지던스 공간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부평 삼릉에서 거주한 연주자들의 집을 새롭게 발굴해서 레지던스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현재 부평 삼릉에서 진행 중에 있는 새뜰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 가운데 공공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주민센터의 한쪽 공간을 마련해서 부평 대중음악박물관(전시관)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한국 대중음악사를 이끈 부평 에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으로 대표하는 부평 음악박물관(전시관)에는 부평 대중음악사를 요약해서 소개하는 전시 기능과 아울러 부평 대중음악을 아카이빙할 수 있는 연구기능도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부평 대중음악의 중요한 장소로서 부평 애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의 장소별 특징을 콘텐츠화해서 3장소를 통합해서 잇는 부평 대중음악 벨트화 사업을 부평 구민들과 함께 하는 부평 음악융합도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부평 대중음악도시로 나아갈 장소별 정책 대안

1) 부평 애스컴시티 - 대중음악의 소비 공간

부평 애스컴시티에는 대중음악의 소비 공간으로서 특화하고, 부대에 존재한 클럽들의 정확한 위치와 명칭을 고증한 뒤, 그 장소에 대중음악관련해서 표지석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서 미국대중음악이 부평 애스컴시티와 부평 신촌, 부평 삼릉에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면서, 이 표지석(표지판)을 중심으로 가칭 ‘미국의 대중음악 둘레길’을 만들어 외국의 대중음악 관광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평 애스컴시티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캠프마켓을 공원으로 지정한 뒤, “부평 애스컴시티 파크로 ‘로 명명하고, 1만평 규모를 세계적인 대중음악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부평 애스컴시티는 한반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였고, 그곳을 거쳐 간 미군들도 가장 많았던 미군부대였기에 미국에서는 부평 애스컴시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세계적인 대중음악 밴드들을 매년 초청해서, 현재 남아 있는 캠프마켓 부지 가운데 1만평을 대중음악공연장으로 활용한다면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세계에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부평 신촌 - 대중음악의 유통 공간

부평 신촌은 대중음악 유통되는 매개 공간이었던 역사성을 감안해서, 대중음악 공연을 할 수 있는 음악 클럽들을 유치하고, 새롭게 조성하거나 음악 클럽 등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부평 신촌에 존재했던 음악클럽 자리에도 표지석을 세워, 부평 음악도시로서 인프라와 음악적 자산이 구축된 역사문화적 장소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부평 신촌의 클럽 위치와 현황은 파악되어 있는 만큼 부평 신촌 클럽이 존재한 곳에 표지석을 세우는 사업을 가장 먼저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부평 신촌에는 대중음악과 연관된 악기점, 음반판매점도 등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서 구축하는 방안도 정책 대안으로 제안한다.

3) 부평 삼릉 - 대중음악의 창작 레지던스 공간

부평 삼릉은 대중음악 연주자들의 창작 레지던스 역할을 20여 년 동안 담당했던 한국대중음악사에 매우 소중한 장소로 자리매김해야 할 장소이자 공간이다.

따라서 부평 삼릉이 대중음악사에서 담당했던 역사문화적 특성을 적극 알려내고 이를 다시 재조명해서 공간 구축, 제도 마련, 콘텐츠 구축 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부평 삼릉 전체를 음악 빌리지(Music village)로 만드는 것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부평 삼릉을 대중음악 빌리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부평 삼릉이 대중음악의 연주자들이 거주한 장소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미래의 음악 세대들에게 창작할 수 있는 음악 레지던스 공간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부평 삼릉에서 거주한 연주자들의 집을 새롭게 발굴해서 레지던스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아울러, 현재 부평 삼릉에서 진행 중에 있는 새뜰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 가운데 공공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해서, 한쪽 공간을 부평 대중음악박물관(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대중음악사를 이끈 부평 애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으로 대표 하는 부평 음악박물관(전시관)에는 부평 대중음악사를 요약해서 소개하는 전시 기능과 아울러 부평 대중음악을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연구기능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 부평 대중음악 3장소 잇는 관광자원화 정책

부평 애스컴시티와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현재 담장이나 도로, 철도 등으로 이들 장소는 단절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세 장소 내부에 대중음악의 본거지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표지석(표지판)을 대중음악 관련되는 장소에 세워 이를 대중음악벨트로 이어서 이른바 '부평 대중음악 들레길'로 부평구 차원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 자치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이 표지판에는 QR코드 활용해서 부평을 찾는 대중음악 애호가들에게 부평의 대중음악의 역사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보고, 듣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한다.

한편,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 코스 출발지는 부평 삼릉에 거주하던 연주자들을 미군부대로 픽업해 주었던 현재 지하철1호선 동수역 3번 출구로 삼아서 부평 삼릉을 둘러본 뒤, 부평 신촌의 옛 미군클럽 자리를 돌아서, 부평 에스컴시티 미군클럽들을 표지판을 중심으로 도는 이른바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 투어를 문화관광코스로 개발할 것도 제안한다.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 투어를 위해서 부평역사박물관, 부평문화원, 대중음악 연구자들과 협력해서 가칭 부평 대중음악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여,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 투어를 음악 관광상품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에는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당시 부평 에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의 음악 자산들을 음악 투어하면서 생생하게 듣도록 하는 앱 개발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부평 에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에 존재했던 대중음악의 역사가 담긴 음악지도, 이른바 ‘부평 음악도시 지도’ 제작을 제안한다.

아울러, 서울로 이어지는 지하철1호선에는 부평의 대중음악의 역사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1년 이상 개제하는 방안과 함께 ‘부평지하철역사’에도 부평이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였던 사실을 알리는 홍보 설치물을 세우는 것도 제안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에도 부평 대중음악의 역사를 담은 이미지 광고 게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 부평 음악·융합문화도시로 나아갈 핵심 키워드

부평 음악문화도시는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부평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앞선 답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평 음악융합도시의 성공은 부평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때에만 가능한 사업이다.

부평 사람들에게 부평음악도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국의 문화도시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부평 음악융합도시사업은 부평 사람들과 긴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대중음악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시키기 앞서 대중음악 관련 커뮤니티 형성에 주력하는 것이 지금의 부평 음악·융합도시 사업의 앞머리에 놓여야 한다.

그리고, 부평 음악융합도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평 애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 앞에는 ‘부평’이라는 지명을 꼭 넣어서 함께 부평 음악융합도시라는 명칭으로 사용해야 한다.

3. 정책 제안

부평음악융합도시는 부평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때에만 가능한 사업이다.

부평 사람들에게 부평음악융합도시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국의 문화도시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부평 음악융합도시사업은 부평 사람들과 긴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하기에 앞서 커뮤니티 형성에 주력하는 것이 지금의 부평 음악융합도시 사업의 가장 앞머리에 놓여야 한다고 본다.

부평 음악융합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애스컴시티, 신촌, 삼릉 지명 앞에는 ‘부평’이라는 지명을 꼭 넣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옛 부평 애스컴시티와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었고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 까닭에 부평이 한국대중음악사에서 20여 년간 중심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다.

따라서 현재는 부평의 대중음악의 중요한 장소가 담장이나 도로, 철도 등 물리적으로나 끊어져 있는 것을 역사·문화적으로 다시 잇는 부평 대중음악의 벨트화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적 정책 과제로 제시 한다.

부평 애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을 한국 대중음악의 본거지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표지석(표지판)을 세워 이를 음악생태계로서 벨트화로 잇는 이른바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로 부평구 차원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구 자치 조례로 제정하는 정책 과제도 제시한다.

4. 향후 연구 과제

부평 음악융합도시 아카이빙 연구의 향후 과제는 부평 애스컴시티에 대한 세밀한 접근, 곧 내부 공간에 대한 세밀한 자료 찾기와 고증이다.

아울러 부평 애스컴시티에 주둔한 부대명칭과 부대위치, 부대 규모, 취급한 군수물자, 미군 부대 숫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덧붙여서, 부평 애스컴시티에서 한국인 노무자들의 역할 등에 대한 생활사적 측면 연구도 부평 대중음악도시로 나아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에 시급하게 후속 연구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부평 신촌의 대중음악 관련 아카이빙 연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평 신촌의 미군전용클럽에 대한 정확한 전수 조사와 함께 당시 부평 애스컴시티에 근무했던 미군들의 부평 신촌 클럽에 대한 증언(영상 증언, 녹음)과 관련 사진들을 발굴하는 본격 시도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평 신촌에 미국 대중문화와 관련된 매체(당시 라디오, 잡지, 악보)와 백판 유통 경로, 당시 부평 신촌 미군클럽에서 들었던 일명 ‘백판’을 수집하는 연구도 시급하게 뒤따라야 한다.

부평 삼릉의 아카이빙 연구는 부평 삼릉에 거주하면서 음악활동을 한 연주자들을 발굴하고, 음악활동과 음악연주곡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평 삼릉에 연주자들이 거주한 장소를 발견하고 발굴하는 아카이빙 작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부평 삼릉에 있는 줄사택이 1동만 남기도 철거되고, 줄사택을 중심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센터 등이 들어설 새뜰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다.

부평 삼릉이 한국 대중음악에서 큰 족적을 남긴 연주자들의 창작 레지던스 공간이었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사실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서 진행되면서 미래 가치로서 부평 삼릉이 지닌 대중음악의 콘텐츠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새뜰사업에 부평 삼릉이 지닌 지역 문화적 요소들이 중요한 콘텐츠로 구성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자료〉

- 부평사편찬위원회(2007), 『부평의 역사』, 부평문화원.
- 부평사편찬위원회(2007), 『부평사 1-부평의 공간과 자연 역사 속의 부평현대사』, 부평사편찬위원회.
- 미8군 사령부(2013),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 〈대중일보〉

〈논문 및 학술지 정기간행물〉

- 안종욱(2005), “영화를 통한 인천의 장소 정체성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 11(6).
- 이현석(2004), 대중문화에 나타난 인천 이미지 연구: 대중가요 및 영화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제3호.
- 류제현, 김정숙, 최유리, 인천시 아이덴티티 형성의 인구·문화적 요인.
- 이준희(2008), “일제시대 인천 지역의 대중음악적 위상”, 인천학연구 9,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8.
- 김이호(1998), “미군방송네트워크(AFN)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용규(2014), “주한미군방송(WVIP)의 등장과 영향(1945~1950)”,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학회.
- 박옥진(2017), “대중음악의 진정한 얼굴 찾기”, 월간 객석 (통권393호)

〈단행본〉

- 박성식(2010), “한국전쟁과 대중가요, 기록과 증언, 책이 있는 풍경.
- 한만송(2013), 캠프마켓, 봉구내책방.
- 부평역사박물관(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II, 부평역사박물관.
- 이영미(2006), 한국대중가요, 민속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포럼(2010), 1961~1975 한국대중음악사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 C.A. 반 퍼스강영안 율김(1994),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 서광사.

- 황문평(1986), 해방가요, 세광출판사.
- 김형찬(2015), 한국대중음악사 산책 : 1960~1970년대 대중음악의 결정적 장면들, 알미출판사.
- 이희환(2011), 이방인의 눈에 비친 제물포, 인천문화재단.

- 인천근현대문화예술사 편찬위원회 엮음(2009), 인천근현대 문화예술사 연구, 인천문화재단.
- 장유정(2013), 「노래는 인천의 추억을 싣고: 대중가요로 본 인천의 어제와 오늘」, 알미출판사.
- 장유정(2006), 오빠는 풍각쟁이야-대중가요로 본 근대의 풍경, 민음in.
- 장유정·서병기(2016), 한국대중음악사 개론, 성안당.
- 김창남(2003),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
- 강준만(1999), 대중문화의 겉과 속 1, 인물과사상사.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의문화”
- 강준만(2002), 대중문화의 겉과 속 2, 인물과사상사.
- 이무용(2005), 공간의 문화정치학-공간, 그곳에서 생각하고, 놀고, 싸우고, 만들기, 논형
- 강병수 외 공저(2018), 부평의 길을 걷다, 다인아트

〈보고서〉

-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2013), 「음악도시 부평-문화정체성 찾기」,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문화복지분과.
- 이장열, 김현석, 박은희(2014), 「인천지역 문화 자족성에 대한 시론적 접근」, 시민과대안연구소